

2023. 5. 20.(토)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6450-7010
	전시기획과	채영	6450-7040
교육홍보과	담당자	이소현	6450-7041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6450-7070
사진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 5쪽	담당자	반태영	6450-7074
	관련 누리집	craftmuseum.seoul.go.kr	

서울공예박물관, 고려아연주식회사와 공예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서울공예박물관), 5월 19일 ‘고려아연주식회사’와 업무협약 체결
- ‘고려아연주식회사’, 대표적 공예 후원 기업이자 ESG 경영 기업
-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중장기 협력전시 <KZ 프로젝트>를 추진 계획... 오는 12월 첫 전시
- 공예분야 박물관-후원기업 간 이상적 협력(파트너십)의 선례가 되길 기대

-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예 전문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은 ‘고려아연주식회사’(회장 최윤범)와 5월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작으로 한국 공예 발전과 지평 확장을 도모하는 중장기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 협약식은 5월 19일 금요일 14:30에 한국프레스센터 5층 서울특별시청 회의실에서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 김경미 박물관정책과장, 김기준 고려아연주식회사 부사장, 금속공예가 서도식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자 협력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서울공예박물관은 2021년 개관한 이후 공예에 대한 다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법을 통해 다채로운 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관련 인프라를 보유한 국내외 기관과 기업, 개인과 교류의 폭을 넓혀 우리 공예의 지평을 확장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국내 대표적 공예 후원기업인 ‘고려아연주식회사’와의 중장기적 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고려아연(주)는 글로벌 종합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금속 제련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관련한 독보적 기술 경쟁력을 통해 친환경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금속제련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2022년부터 ESG 경영을 본격화한 바 있다.

○ 또한, 고려아연은 2013년 창설된 우리나라 금속공예 분야 유일 작가상인 ‘올해의 금속공예가상’을 10년간 후원하여 한국 현대금속공예분야 창작 기반 조성에 기여해왔다.(상금 및 운영비 전액 기부)

○ 이번 업무협약식은 지난 2022년에 있었던 고려아연주식회사의 사업비 기부를 통한 중장기적 협력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KZ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공예분야 협력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 KZ는 고려아연주식회사의 영문(Korea Zinc) 약칭이다.

□ 서울공예박물관과 ‘고려아연주식회사’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현대공예 관련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등에 관한 공동 추진과 협력 ▲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 등 한국 현대공예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는다. 이를 통해 공공 박물관과 후원기업의 안정적 파트너십을 확립하고 서울 공예박물관이 한국 현대공예의 중요한 창작기반이자 세계적 수준의 공예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공예박물관과 고려아연(주)는 오는 12월 개막 예정인 <KZ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전시는 공예가의 작품과 일상에서 발견되는 ‘지속가능한’ 제작 및 생활방식에 주목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위한 매개로서의 공예를 조명한다.(붙임1 참조)

- 김기준 고려아연주식회사 부사장은 “공예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박물관과 기업이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을 시작하게 되어 그 의미가 크다”며, “협력사업인 <KZ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공예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최경주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서울공예박물관과 우리나라 현대공예 발전에 큰 힘을 보태 온 고려아연이 손을 맞잡게 되어 기쁘다”며 “공예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모색하고, 현대공예의 면모를 국내외에 새롭게 선보이는 다양한 기회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2023년도 전시개요

2. MOU 체결 사진

[붙임1] 2023년도 전시개요

□ 전시 개요

- 전시제목 : KZ 프로젝트 〈만년사물-지속가능한 삶과 공예(가제)〉
- 전시기간 : '23. 12월 중순 ~'24. 3월 중순
- 전시주제 : 공예 작가의 일상과 작품 제작과정에 담긴 이야기를 소개하고, 공예를 통한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을 전달

○ 주요내용

- 공예가의 작품은 물론 일상에서 발견되는 ‘지속가능한’ 제작 및 생활방식에 주목하고,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공예 제시
- 공예가의 생활(작업) 환경, 일상의 루틴, 철학과 취향 등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작품과 함께 전시
- 개막행사, 작가와의 대화, 워크숍 등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기획,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작가와 소통하는 기회 마련

○ 출품작가 : 올해의 금속공예가상 역대 수상자 18인

- 박성철·조성호(2013), 박미경(2014), 김동현·심현석(2015), 김현성·홍지희(2016), 천우선(2017), 김석영·한상덕(2018), 박지은·이승현(2019), 김연경·이영주(2020), 김신령·현광훈(2021), 원재선·주소원(2022) ※ 2014년 수상자 신혜림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

			
김동현(기물)	김석영(기물)	김신령(장신구)	김연경(장신구)
			
김현성(가구 및 기물)	박성철(가구 및 기물)	박미경(옷칠 기물)	박지은(장신구)
			
심현석(기물)	원재선(장신구)	이승현(기물)	이영주(장신구)

 <p>조성호(기물 및 장신구)</p>	 <p>주소원(기물 및 장신구)</p>	 <p>천우선(기물)</p>	 <p>한상덕(오브제)</p>
 <p>현광훈(시계)</p>	 <p>홍지희(장신구)</p>	<p>전시 출품작가 대표작품 및 자료</p>	

[붙임2] MOU 체결 사진

<p>협약식 체결 후 제공</p>	
--------------------	--